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인칭접미사 대조분석*

-직업성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

김 청 룡

(중국 중앙민족대)

<Abstract>

Jin QingLong. 2013. The Analysis of Personal Suffix of Sino-Korean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 Focused on the Occupational Personal Suffix. *Korean Semantics*, 42. Whether in Chinese or Korean, in creation pattern derivative role of the suffix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Korean suffix which was well developed, and also there were many derivative words, also had many personal suffix. This paper is focus on the occupational Sino-Korean words of personal suffix, which showed hierarchical characteristic.

In this paper, we collect the occupational Sino-Korean words of personal suffix list in Korean and Chinese, through semantic marker analysis, to compare the common and different points of the occupational word suffix between these two languages.

Through compare analysis, the characteristic of Sino-Korean words of personal suffix between Korean and Chinese are:

Firstly, in Korean and Chinese, occupational Sino-Korean words of personal suffix was based on “specialty”(전문성), which can be classified as “specialty in knowledge” type (지식전문성 유형) “specialty in skill” type (기술전문성유형) , “not specialty in knowledge or skill” type.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3-OLU-2250004).

Second in Korean and Chinese with the occupational personal suffix in their own system, not only can reflect hierarchical characteristic but also show the phenomenon of differentiation.

Third in Korean and Chinese, some of occupational personal suffix exhibit cross relationship. e.x. Korean ‘-사士’ corresponding to Chinese ‘師’, in Korean ‘-사師’ corresponding to Chinese ‘士’.

Fourth in Korean and Chinese, some of occupational personal suffix exhibit one to many relationships. e.x. Chinese ‘-家’ corresponding to Korean ‘-가家’ and ‘자者’ at the same time.

핵심어: Korean(한국어), Chinese(중국어), Sino-Korean words(한자어), personal suffix(인칭접미사), occupational(직업성), hierarchical characteristic(사회적 계층성), compare(대조).

1. 서론

한국어나 중국어를 막론하고 조어론에서 접사의 파생적 역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접사가 발달되고 접사에 의한 파생어가 많다. 그리고 접미사 중에는 사람과 관련된 인칭접미사도 그 수가 적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이들 인칭접미사 중 직업성을 띤 인칭접미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국어의 직업명은 파생 조어력이 강한 직업성 인칭접미사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조어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계층성도 반영하고 있다. 졸고(2012)는 한국어 한자어 인칭접미사에서 반영되는 사회적 계층성 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다룬 적이 있는데, 본고는 그 후속적인 연구로 대조적 시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한자어 조어론에서 파생어와 복합어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접두사와 접미사의 목록 설정도 확실하지 않은 만큼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 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노명희 2005:70).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접미사를 대조적 시각으로 출발한 연구는 더욱이 많지 않다. 이영자(2008), 진정정(2008)은 한중 한자어 인칭접미사의 의미기능을 고찰하

였지만 몇몇 한정된 한자어 인칭접미사만 다루어 그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한자어 인칭접미사 목록을 정리하고 이들의 의미자질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중 양 언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 목록

기존의 논의들에서 한국어 접미사에 관한 판별기준¹⁾을 내오고 접미사 목록을 작성한 것도 있지만 기준에 차이가 큰 만큼 목록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목적은 접미사의 판별기준을 따져보는 것이 아닌 만큼 졸고(2012:55-61)에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을 대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과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을 참고로 두루 살펴²⁾ 그 직업성 판별 분석을 통해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가져

1) 고영근(1989:528-529) 접미사 확인 기준: 1) 접미사는 의존성을 띤다. 2) 조사나 형식명사, 어미가 보편성을 발휘하는데 비해 접미사는 특수성(불규칙성, 비생산성)을 띤다. 3) 접미사는 문법정보보다는 어휘성을 띤다. 4) 접미사는 체언 형성 시에는 조사와, 용언 형성 시에는 어미와의 통합에 제약이 없다.

노명희(2005:99-108) 접미사 판별 기준: 1) 어기에 대한 의존성; 2) 어기의 범주 변화; 3) 의미의 변화; 4) 단어의 첫 음절에 출현 불가; 5) 단어 이상의 어기에 결합 가능; 6) 조사 결합의 제약; 7) 생산성; 8) 어기의 비자립성; 9) 명사수식 기능; 10) 결합 순위.

- 2) ① 《고려대》 인칭접미사 목록(36개): -가(哥), -가(家), -객(客), -공(工), -관(官), -광(狂), -택(宅), -도(徒), -마(魔), -민(民), -배(輩), -범(犯), -보(補), -부(夫), -부(婦), -사(士), -사(師), -생(生), -수(囚), -수(手), -씨(氏), -아(兒), -양(孃), -원(員), -인(人), -자(者), -장(丈), -장(長), -주(主), -책(責), -치(癡), -통(通), -한(漢).
- ② 《표준》 인칭접미사 목록(36개): -가(哥), -가(家), -객(客), -공(公), -공(工), -관(官), -광(狂), -녀(女), -택(宅), -도(徒), -민(民), -배(輩), -범(犯), -보(補), -사(師), -사(士), -상(商), -생(生), -수(囚), -수(手), -씨(氏), -아(兒), -양(孃), -옹(翁), -왕(王), -원(員), -인(人), -자(者), -자(子), -장(丈), -장(長), -족(族), -주(主), -책(責), -통(通), -한(漢).
- ③ 《연세》 인칭접미사 목록(36개): -가(哥), -가(家), -객(客), -공(公), -공(工), -광(狂), -택(宅), -도(徒), -민(民), -배(輩), -범(犯), -보(補), -부(夫), -부(婦), -사(師), -사(士), -상(商), -생(生), -수(囚), -수(手), -씨(氏), -아(兒), -양(孃), -왕(王), -원(員), -인(人), -자(者), -장(丈), -장(長), -족(族), -주(主), -책(責), -통(通).

왔다.

여기서 ‘직업성’이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일에서의 역할 또는 직책”과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자, 청소부, 운동원’ 등은 직업성 관련 어휘이지만 ‘은행장, 자금책, 공격수’ 등은 “역할 또는 직책”을 나타내는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업성 관련 어휘가 아니다.

- (1) 한국어 한자어 직업성 인칭접미사 목록(13개)³⁾: -가₁ (家), -공(工), -관(官), -부(夫), -부(婦), -사(士), -사(師), -상(商), -수(手), -양(孃), -원₁ (員), -인₂ (人), -자₁ (者).

(1)의 목록 중 ‘-가₁ (家)’은 《고려대》에서 풀이한 의미항 중 첫 번째 의미항임을 표시한다. 《고려대》에서 인칭접미사 ‘-가(家)’에 관하여 다음 (2)와 같이 네 개의 의미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 (2) -가(家): ① 전문 직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예: 작곡가, 소설가, 정치가, 안무가.
 ② 전문적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에 붙어, ‘그것에 능한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예: 웅변가, 전략가, 사교가, 외교가.
 ③ 일부 명사의 뒤에 붙어,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예: 재산가, 자본가, 장서가.
 ④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예: 노력가, 대식가.

(2)의 ‘-가(家)①’을 보면 ‘작곡, 소설, 정치, 안무’ 등 전문 직종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인칭접미사 ‘-家’가 붙어 ‘작곡가, 소설가, 정치가, 안무가’ 등

3) 김용한(1998:104)은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 어소 중 ‘직업’과 관련한 것으로 ‘干, 監, 工①, 官, 教, 校, 軍①, 軍①, 妓, 農, 導, 母②, 巫, 陪, 兵, 保①, 保②, 補, 夫, 父③, 婦②, 婦③, 使, 士, 師, 商, 生, 手, 侍, 僧, 孃①, 員, 醫, 匠, 掌, 丁, 直, 花’ 등을 들고 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또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즉 [+직업], [+직종]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김종택(1982:208)에서는 ‘-가(家)’의 의미 기능에 대해 “어떤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일정한 성취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을 나타낸다. 이것은 능력을 위주로 본 것이지 굳이 직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가(家)②’를 보면 ‘옹변, 사고, 외교’ 등 전문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인칭접미사 ‘-가(家)’가 붙어 “어떤 것을 잘 하거나 능한 사람”을 나타낸다. 즉 인칭접미사 앞에 오는 어근은 [+행위]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김종택(1989)은 ‘-가(家)①’과 ‘-가(家)②’의 의미 기능을 통털어서 논의한 것인데, 《고려대》에서 이를 둘로 구분했듯이 둘 다 [+능력]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家)①’은 직업과 관련된 것이고 ‘-가(家)②’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가(家)③’를 보면 ‘재산, 자본, 장서’ 등 [+물질] 또는 [+물건]의 의미자질을 지닌 어근 뒤에 인칭접미사 ‘-가(家)’가 붙어 “그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가(家)④’를 보면 ‘노력가, 대식가’ 등은 [+특성]의 자질을 지닐 뿐 직업성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다의성을 지닌 인칭접미사 ‘-가(家)’는 ‘-가(家)①’만이 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 이를 ‘-가₁(家)’로 제시하였다. ‘-원₁(員), -인₂(人), -자₁(者)’도 《고려대》에서 뜻풀이한 의미항 중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의미항임을 표시한다.

중국어에서도 접미사(後綴)에 관한 판별기준은 학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바⁴⁾, 필자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신빙성이 높은 《現代漢語詞典》(第五版)(이하 《現漢》)과 《漢語水準等級標準與語法等級大綱》(이하 《大綱》)을 살펴보고 중국어 접미사(後綴) 목록을 정리하였다.

- (3) 《現漢》 접미사 목록(19개): -巴巴, -邊, -兒, -爾, -化, -家(·jia), -個, -麼, -價(·jie), -面, -然, -如, -生³, -生⁴, -頭, -性, -於, -子.⁵⁾

4) 현대한어의 문법 범주 중 인식 상의 분기, 용어 상의 분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접사에 관한 것이다.(在現代漢語各級語法單位中, 認識分枝之大, 術語分枝之大都莫過於詞綴)(馬慶株:1995 참조)

5) 《現漢》에서 표제어 ‘後綴’의 뜻풀이에서는 용례로 ‘作家, 科學家’의 ‘家’를 들고 있지만 표제

- (4) 《大綱》 접미사 목록(27개): -們, -兒, -頭, -子, -家, -化, -性, -學, -員, -度, -件, -式, -物, -長, -者, -然, -感, -界, -具, -力, -率, -迷, -品, -熱, -手, -星, -型.

《現漢》과 《大綱》에 수록된 접미사들을 ‘접미사’, ‘인칭접미사’, ‘직업성 인칭접미사’ 별로 판별하여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1>에서 보다시피 오직 《大綱》에 수록된 접미사 중 ‘-家, -員, -者, -手’ 등 네 개 만이 직업성을 띤 인칭접미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인정하는 한자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에 비하여 엄청 적은 숫자이다.

<표 1> 《現漢》과 《大綱》의 접미사 목록 비교표

	두 책에 공동으로 수록된 접미사	《現漢》에만 수록된 접미사	《大綱》에만 수록된 접미사
접미사	-兒, -化, -然, -頭, -性, -子	邊, -爾, -乎, -家(·jia), -個, -麼, -價(·jie), -面, -如, -生 ³ , -生 ⁴ , -于, -巴巴	-們, -家, -學, -員, -度, -件, -式, -物, -長, -者, -感, -界, -具, -力, -率, -迷, -品, -熱, -手, -星, -型.
인칭접미사	-子	-家(·jia), -生 ³ .	-家, -員, -長, -者, -手.
직업성 인칭접미사	—	—	-家, -員, -者, -手.

《現漢》과 《大綱》은 접미사(後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다룬바⁶⁾ 한국어에서 한자어 인칭접미사로 인정한 ‘工, 官, 夫, 婦, 士, 師, 商, 娘, 人’ 등을 접미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⁷⁾ 그러나 이들은 중국어에서도 여전히 직업명

어 ‘家’에 관해서는 인칭접미사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現漢》 집필 상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6) 朱德熙(1982)의 판별기준: a, 粘附性; b, 意義抽象; c, 定位; d, 音節弱化.
7) 任學良(1981)과 馬慶株(1995)에서는 접미사(後綴)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任學良(1981): 後綴: 子, 兒, 頭, 員, 家, 者, 士, 師, 生, 手, 漢, 夫, 丁, 郎, 衆, 屬, 鬼, 棍, 迷, 犯, 派, 分子, 主義, 性, 處, 品, 巴, 化, 於, 乎, 以, 麼, 然, 其, 切, 而, 爾, 且, 的, 地, 得, 了, 著.

을 조어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직업성 접미어소라 칭할 수 있다.

3.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의미자질 분석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려면 일정한 전문성, 능력수준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질 때도 많다. 이 같은 전문성과 능력수준은 직업명을 조어하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에서도 반영되는데, 여기서 ‘전문성’이라 하면 [+지식 전문성], [+기술전문성], [-지식·기술 전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능력수준, 다시 말하면 ‘정도성’이라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인 ‘대우도’는 [+존대], [-존대], [±존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명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유형에 따라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다.

- (5) 의미유형 → 의미자질
 성질 → [+사람]
 직업성 → [+직업]
 전문성 → [+지식전문성] or [+기술전문성] or [-지식·기술 전문성]
 정도성 → [+전문가] or [-전문가]
 대우도 → [+존대] or [-존대] or [±존대]

3.1. 한국어 한자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 의미자질 분석

准後綴: 論, 度, 式, 卻, 豪.

馬慶株(1995): 後綴: 子1, 兒, 頭, 麼, 巴, 裡, 們兒, 家(姑娘家), 上(早上等), 下(年下等), 個(今兒個), 嘛, 嗒, 咕, 以, 悠, 棒, 當, 道, 溜, 氣, 實, 不唧, 巴巴, 沉沉, 衝衝, 地, 而, 價, 爲, 自, 來, 拉, 騰, 得, 生, 是, 其, 則, 了(除了, 罷了等), 性, 者, 然, 著(接著, 來著等), 於, 乎.

准後綴: 棍, 戶, 家, 界, 准, 總, 迷, 派, 師, 犯, 夫, 鬼, 生, 士, 手, 徒, 員, 子2(弟子等), 別, 處, 帶, 度, 法, 份, 觀, 理, 論, 熱, 手兒, 壇, 體, 線, 學, 子3(分子等), 化.

한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를 《고려대》의 뜻풀이를 참고로 하여 주로 ‘전문성’과 ‘정도성’을 기준으로, 그리고 개별 인칭접미사에 따른 기타 [+@]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다음 (6)과 같이 의미자질을 분석할 수 있다.

- (6) ① -가₁ (家): 건축가, 공예가, 교육가, 만화가, 무용가.
 {전문 직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뛰어남].
- ② -공(工): 벽돌공, 선반공, 수선공, 인쇄공, 정비공.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직공’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근로자].
- ③ -관(官): 검찰관, 경찰관, 교도관, 군의관, 재판관.
 {공공 행정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처리하는 관리, 관료 또는 공직자’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공직자].
- ④ -부(夫): 배달부, 우체부, 잠수부, 잡역부, 청소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일하는 남자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근로자], [+남성].
- ⑤ -부(婦): 가정부, 매춘부, 접대부, 청소부, 과출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일하는 여자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근로자], [+여성].
- ⑥ -사(士)a: 건축사, 변호사, 설계사, 세무사, 회계사.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공인된 전문가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자격].
- 사(士)b: 운전사, 비행사, 기관사, 기능사, 정비사, 조종사.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공인된 전문가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전문가], [+자격], [+기계 조작 기술].
- ⑦ -사(師): 간호사, 곡예사, 미용사, 사진사, 요리사, 이발사, 재단사, 조련사.
{직업이나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자격], [+손재간].
- ⑧ -상(商): 고물상, 노점상, 도매상, 미곡상, 보석상, 소매상, 수입상.
{(일부 명사 뒤에 붙어)‘상인’ 또는 ‘상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표준>>⁸⁾
[+사람], [+직업], [+상인].
- ⑨ -수(手): 나팔수, 무용수, 소방수, 운전수.
{일부 명사나 명사성 어근 뒤에 붙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자격].
- ⑩ -양(嬢): 안내양, 교환양.
{동작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여성’의 뜻을 더하는 말.}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젊은 여성].
- ⑪ -원₁ (員): 간호원, 경비원, 경호원, 공작원, 공무원, 매표원, 승무원, 심판원, 안내원, 역무원, 연구원, 정보원, 통신원.
{직업이나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현장 업무].
- ⑫ -인₂ (人): 종교인, 예술인, 연극인, 미술인, 기술인, 기업인, 연예인, 신문인.
{직업이나 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소속].
- ⑬ -자₁ (者): 수학자, 철학자, 교육자, 법학자.

8) <<고려대>>에서는 ‘-상(商)’을 접미사로 수록하지 않았기에 여기서는 <<표준>>의 뜻풀이를 가져왔다.

{학문이나 전문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방면의 일이나 지식에 능통하여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
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6)⑥의 ‘-사(士)’의 경우, 《고려대》에서는 “업무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공인된 전문가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
는 말”로 하나의 의미항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⑥에서 보다시피 ‘전문성’을
기준으로 ‘건축사, 변호사, 설계사’ 같은 것들은 [+지식전문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조종사, 기관사, 정비사’ 같은 것들은 [+기술전문성]의 의미자질을 지
니므로 ‘-사(士)a’, ‘-사(士)b’로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6)② 같은 경우 뜻풀이 중 ‘직공’이라는 표현으로 기타 개별적인 [+@]인
[+근로자] 자질을 추출할 수 있고 (6)③의 경우 뜻풀이 중 ‘공공 행정 업무’라
는 표현에서 [+공직자] 자질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6)①과 ⑬의 뜻풀이
중에서는 [+뛰어남] 자질에 있어서 ‘-가₁ (家)’와 ‘-자₁ (者)’의 우열이 분명하
지 않다. 단, 한자어 ‘가(家)’는 ‘대가(大家)’의 의미를 지니고 한자어 ‘자(者)’
는 ‘학자(學者)’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며 직업성 인칭접미사 ‘-가₁
(家)’와 ‘-자₁ (者)’를 호환 가능한 직업명들은 ‘-가₁ (家)’일 경우 ‘조예가 깊
은 사람’, ‘-자₁ (者)’일 경우 ‘연구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6)①과 ⑬의 구별로 ①‘-가₁ (家)’은 [+뛰어남]이란 개별 자질이 있다
고 판단한다.

위 (6)를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한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 의미자질 분석표

직업성 인칭접미사	전문성		정도성	기타[+@]
	지식전문성	기술전문성	전문가 여부	
-가 ₁ (家)	+	-	+	[+뛰어남]
-공(工)	-	+	-	[+근로자]

9) 예하면 ‘철학자: 인간이나 세계, 인생, 진리에 대한 지혜와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에 조예
가 깊은 사람’, ‘철학자: 철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10) 김용환(1998:136)은 ‘-員’과 관련하여 업무상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현

-관(官)	-	-	-	[+공직자]
-부(夫)	-	-	-	[+근로자][+남성]
-부(婦)	-	-	-	[+근로자][+여성]
-사(士)a	+	-	+	[+자격]
-사(士)b	-	+	-	[+자격][+기계 조작 기술]
-사(師)	-	+	-	[+자격][+손재간]
-상(商)	-	-	-	[+상인]
-수(手)	-	+	-	[+자격]
-양(嬢)	-	-	-	[+젊은 여성]
-원 ₁ (員)	-	-	-	[+현장 업무] ¹⁰⁾
-인 ₂ (人)	+	-	-	[+소속]
-자 ₁ (者)	+	-	+	—

<표 2>를 살펴보면, [+지식전문성] 자질을 지닌 한국어의 한자어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가₁(家), -사(士)a, -인₂(人), -자₁(者)’ 등이 있고, [+기술전문성] 자질을 지닌 것은 ‘-공(工), -사(士)b, -사(師), -수(手)’ 등이 있으며, [+전문가] 자질을 지닌 것은 ‘-가₁(家), -사(士)a, -자₁(者)’ 등이 있다.

3.2.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의미자질 분석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現漢》에서의 뜻을 참고로 하여 주로 ‘전문성’과 ‘정도성’, 그리고 기타 [+@]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의미자질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大綱》에서 인정한 인칭접미사 ‘-家, -員, -者, -手’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7)과 같다.

- (7) ① -家: 科學家, 藝術家, 文學家
 {掌握某種專門學識或有豐富實踐經驗及從事某種專門活動的人¹¹⁾}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뛰어남].
- ② -員: 教員, 公務員, 消防員, 送貨員.
 {工作或學習的人¹²⁾}

장 업무], [+담당자] 자질을 지닌다고 하였다.

11) 번역: 전문 학식 또는 풍부한 실천 경험을 지니거나 그러한 전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사람], [+직업], [+현장 업무].

③ -者: 教育工作者, 文藝工作者

{用在名動詞形容詞數詞組後, 並與其相結合, 指人, 指事, 指物, 指時等13)}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④ -手: 棋手, 歌手, 樂手.

{專司某事或擅長某種技藝的人14)}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자격].

그리고 중국어에서 엄격한 기준으로는 인칭접미사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직업성 자질을 지니고 직업명을 조어하는데 파생적 역할을 하는 ‘工, 官, 夫, 婦, 士, 師, 商, 娘, 人’ 등 접미어소에 대해서도 의미자질을 분석할 수 있다.

(8) ① 工: 染工, 琴工, 石工, 瓦工.

{工匠, 工人15)}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장인(匠人)].

② 官: 警官, 檢查官, 消防官.

{在政府擔任職務的人16)}

[+사람], [+직업], [+공직자].

③ 夫: 農夫, 轎夫, 三輪車夫.

{從事某種體力勞動的人17)}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체력 노동], [+남성].

④ 婦: 桑婦, 絲婦, 農婦.

{泛指女性18)}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체력 노동], [+여성].

⑤ 士: 醫士, 護士, 技士.

12) 번역: 어떤 일 또는 공부하는 사람.

13) 번역: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의 단어결합 뒤에 붙어 사람, 사건, 사물, 시간 등을 가리킨다.

14) 번역: 그 일에 종사하거나 그 분야의 기술을 지닌 사람.

15) 번역: 장인, 노동자.

16) 번역: 정부에서 직무를 가진 사람.

17) 번역: 어떤 체력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18) 번역: 여성을 가리킴.

{指某些技術人員¹⁹⁾}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자격].

⑥ 師a: 律師, 會計師, 審計師.

{擅長某種技術的人²⁰⁾}

[+사람], [+직업], [+지식전문성], [+전문가], [+자격].

師b: 理髮師, 廚師.

{擅長某種技術的人}

[+사람], [+직업], [+기술전문성], [+자격], [+손재간].

⑦ 商: 建築商, 皮貨商.

{商人²¹⁾}

[+사람], [+직업], [+상인].

⑧ 娘: 蠶娘, 魚娘, 廚娘.

{對婦女的泛稱, 多指少女²²⁾}

[+사람], [+직업], [-지식·기술 전문성], [+젊은 여성].

⑨ 人: 軍人, 工人, 商人.

{指某種人²³⁾}

[+사람], [+직업], [+소속].

(8)⑥의 경우, 《現漢》에서는 직업성 접미어소 ‘師’에 대하여 오로지 “擅長某種技術的人(어떤 기술에 능한 사람)”이라 해석하고 있지만, 역시 ‘전문성’을 기준으로 ‘律師, 會計師, 審計師’ 같은 것들은 [+지식전문성] 자질을 지니고, ‘理髮師, 廚師’ 같은 것들은 [+기술전문성] 자질을 지니는 만큼 ⑥처럼 ‘師a’, ‘師b’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위 (7)과 (8)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 번역: 일부 기술자를 가리킴.

20) 번역: 어떤 기술에 능한 사람.

21) 번역: 상인.

22) 번역: 부녀자에 대한 지칭, 주로 소녀를 가리킴.

23) 번역: 모종의 사람의 가리킴.

<표 3>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의미자질 분석표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전문성		정도성	기타[+@]
	지식전문성	기술전문성	전문가 여부	
-家	+	-	+	[+뛰어남]
-員	-	-	-	[+현장 업무]
-者	+	-	-	—
-手	-	+	-	[+자격]
工	-	+	-	[+장인(匠人)]
官	-	-	-	[+공직자]
夫	-	-	-	[+체력 노동][+남성]
婦	-	-	-	[+체력 노동][+여성]
士	-	+	-	[+자격]
師a	+	-	+	[+자격]
師b	-	+	-	[+자격][+손재간]
商	-	-	-	[+상인]
娘	-	-	-	[+젊은 여성]
人	-	-	-	[+소속]

<표 3>을 살펴보면, [+지식전문성] 자질을 지닌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는 ‘-家, -者, 師a’ 등이 있고, [+기술전문성] 자질을 지닌 것은 ‘-手, 工, 士, 師b’ 등이 있으며, [+전문가] 자질을 지닌 것은 ‘-家, 師a’ 등이 있다.

4.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 대조분석

위 3절의 의미자질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직업성 인칭접미사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지식전문성] 자질을 지닌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지식전문성 유형’이라 하고, [+기술전문성] 자질을 지닌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기술전문성 유형’이라 하며, [-지식·기술 전문성] 자질을 지닌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자질은 분명하지 않고 ‘신분성’과 관련된 개별적인 [+신분] 자질을 지닌 것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신분성 유형’이라 한다.

- (9) 의미자질 → 직업성 인칭접미사 유형
- [+지식전문성] → 지식전문성 유형
- [+기술전문성] → 기술전문성 유형
- [-지식·기술 전문성] →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
- [+@(신분)] → 신분성 유형

(9)의 유형 설정에 따라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유형을 다음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4> 한·중 직업성 인칭접미사 유형 분류표

유형	한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지식전문성 유형	-가 ₁ (家), -사(士), -인 ₂ (人), -자 ₁ (者).	-家, -者, 師a.
기술전문성 유형	-공(工), -사(士)b, -사(師), -수(手).	-手, 工, 士, 師b.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	-부(夫), -부(婦), -양(孃).	夫, 婦, 娘
신분성 유형	-관(官), -상(商), -원 ₁ (員).	官, 商, -員, 人.

<표 4>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일치한 것은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에 포함된 직업성 인칭접미사들 뿐이다. 기술전문성 유형도 일치한 듯 보이지만 한국어의 경우, ‘-사(士)’ 전체 의미항이 아닌 ‘-사(士)b’만 포함되고 중국어의 경우, ‘師’ 역시 전체 의미항이 아닌 ‘師b’만 포함된다.

4.1.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에 반영되는 사회적 계층성

사회 계층이란 유사한 사회적·경제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교육정도·직업·수입·거주 지역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는 일

반적으로 상류계층, 중류계층, 하류계층으로 이를 구분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층 분화는 직업군의 명칭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막론하고 사람들은 선호하는 직업이 있고 기피하는 직업이 따로 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사회적인 대우도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여 한국어에서는 ‘간호부’를 ‘간호사’로, ‘안내양’을 ‘안내원’으로 고쳐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사회적 대우도가 반영되고 따라서 계층 분화 양상을 보인다.²⁴⁾

- (10) ① 건축가, 공예가, 교육가, 변호사, 설계사, 세무사, 수학자, 철학자, 교육자.
 ② 운전사, 기관사, 정비사, 간호사, 사진사, 요리사, 나팔수, 무용수, 예술인, 기업인.
 ③ 배달부(夫), 우체부(夫), 가정부(婦), 접대부(婦), 안내양, 교환양, 벽돌공, 인쇄공.
- (11) ① 科學家, 藝術家, 文學家, 律師, 會計師, 審計師.
 ② 醫士, 護士, 技士, 理髮師, 廚師, 棋手, 歌手, 記者, 文藝工作者.
 ③ 染工, 石工, 瓦工, 農夫, 轎夫, 桑婦, 絲婦, 農婦, 蠶娘, 魚娘.

(10)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직업명 ①은 ②에 비해 사회적 대우 면에서 한 단계 높고, ②는 ③에 비해 한 단계 높음을 알 수 있다. (11)를 살펴보면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①은 ②에 비해, ②는 ③에 비해 사회적인 대우 면에서 한 단계 높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직업성 인칭접미사가 ‘전문성’ 및 ‘정도성’ 면에서 [+지식전문성] 자질과 [+전문가] 자질을 지니면 [+존대] 자질을 나타내고 [+기술전문성] 자질과 [+전문가] 자질, 그리고 그 외의 [+자격] 자질까지 지니면 [±존대] 자질을 나타내며 [+지식전문성] 자질과 [-전문가] 자질을 지니면 역시 [±존대] 자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직업성 인칭접미사가 [-지식·기술 전문성] 자질을 지니면 [-존대] 자질을 나타내며

24) 한국어 한자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에 반영되는 사회적 계층성에 관하여 졸고(2012:65-73) 참조.

[+기술전문성] 자질을 지니더라도 [+전문가] 및 [+자격] 자질을 지니지 못하면 역시 [-존대] 자질을 나타낸다. 이를 공식으로 다음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2) ① [+지식전문성] + [+전문가] → {+존대}
 ② [+기술전문성] + [+전문가] + [+자격] → {±존대}
 [+지식전문성] + [-전문가] → {±존대}
 ③ [-지식기술전문성] → {-존대}
 [+기술전문성] + [-전문가] + [-자격] → {-존대}

사회적 대우도인 [+존대], {±존대}, [-존대] 자질에 따라 직업명을 조어하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도 계층 분화되는데 [+존대] 자질을 나타내는 것은 ‘상위 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라 할 수 있고 {±존대} 자질을 나타내는 것은 ‘중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라 할 수 있고 [-존대] 자질을 나타내는 것은 ‘하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라 할 수 있다.

상기 <표 2>와 <표 3>을 살펴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한국어에서는 ‘-가₁ (家), -사(士)a, -자₁ (者)’가 포함되고 중국어에서는 ‘-家, 師a’가 포함된다. ‘중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한국어에서는 ‘-사(士)b, -사(師), -수(手), -인₂ (人)’등이 포함되고 중국어에서는 ‘-士, 師b, -手, -者’등이 포함된다. ‘하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한국어에서는 ‘-공(工), -부(夫), -부(婦), -양(孃)’등이 포함되고 중국어에서는 ‘工, 夫, 婦, 娘’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신분성 유형’에 속하는 인칭접미사 중 한국어의 ‘-관(官)’이든 중국어의 ‘官’이든 동양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해 높이 모시는 통상적 관념이 있는 만큼 ‘-관’ 관련 직업들은 [+존대] 의미자질을 지닌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한국어의 ‘-상(商), -원₁ (員)’과 중국어의 ‘商, -員, 人’은 앞에 오는 어근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결정되기에 이를 ‘중립성을 띤 직업성 인칭접미사’라 칭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에서 반영되는 사회적 계층성에 따라 다음 <표 5>와 같이 계층 분류할 수 있다.

<표 5> 한·중 직업성 인칭접미사 계층 분류표

	한국어	중국어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가 ₁ (家), -사(士)a, -자 ₁ (者), -관(官).	-家, 師a, 官.
중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사(士)b, -사(師), -수(手), -인 ₂ (人).	士, 師b, -手, -者.
하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공(工), -부(夫), -부(婦), -양(嬢).	工, 夫, 婦, 娘.
중립성을 띤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상(商), -원 ₁ (員).	商, -員, 人.

4.2.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 의미기능의 비대칭성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들은 그 내부에서는 모두 계층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상호 대응관계 면에서는 의미기능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일부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교차 대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사(士)a’는 [+지식전문성], [+전문가], [+자격]의 의미자질을 지녀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인칭접미사’에 속하지만 중국어의 인칭접미어소 ‘士’는 오로지 [+기술전문성], [+자격] 자질을 지녀 한국어 ‘-사(士)b’의 의미기능에만 대응된다. 대신 (13)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사(士)a’와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은 중국어의 인칭접미어소 ‘師a’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4)처럼 한국어의 ‘-사(師)’와 중국어의 ‘士’가 교차 대응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 (13) 한 : -사(士)a: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중 : 師a: 律師, 會計師, 設計師

- (14) 한 : -사(師): 간호사
중 : 士: 護士

다음, 중국어와 한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1 대 다(多)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15)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家’는 한국어의 ‘-가₁ (家)’와

대응되는 동시에 한국어의 ‘-자₁ (者)’와도 대응된다.

- (15) 한 : -가₁ (家): 문학가, 교육가, 무용가
 -자₁ (者):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중 : -家: 文學家, 教育家, 舞蹈家, 科學家, 數學家, 哲學家

그리고 한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 ‘-가₁ (家)’, ‘-자₁ (者)’, ‘-인₂ (人)’은 같은 어근 뒤에서 상호 호환성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학문·학술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근 뒤에는 ‘-가₁ (家)’, ‘-자₁ (者)’, ‘-인₂ (人)’이 모두 붙을 수 있다.

- (16) {전문적 학문·학술}→ ‘-가₁ (家)’, ‘-자₁ (者)’, ‘-인₂ (人)’
 문학가-문학자-문학인 철학자-철학자-철학인

둘째, 전문적인 기술·예술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근 뒤에는 ‘-가₁ (家)’와 ‘-인₂ (人)’이 붙을 수 있다.

- (17) {전문적 예술}→ ‘-가₁ (家)’, ‘-인₂ (人)’
 건축가-건축인 공예가-공예인
 만화가-만화인 무용가-무용인
 미술가-미술인 서예가-서예인
 성악가-성악인 조각가-조각인

셋째, 학술적인 연구 분야가 아닌 실천적 분야를 나타내는 한국어 어근 뒤에는 ‘-가₁ (家)’와 ‘-인₂ (人)’이 붙을 수 있다.

- (18) {실천적 분야}→ ‘-가₁ (家)’, ‘-인₂ (人)’
 교육가-교육인 기업가-기업인 만담가-만담인

발명가-발명인	법률가-법률인	사진가-사진인
사업가-사업인	소설가-소설인	수필가-수필인
실업가-실업인	작곡가-작곡인	작명가-작명인
정치가-정치인	종교가-종교인	평론가-평론인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들에 대한 의미 자질 분석을 통해 각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 양 언어의 사전에 수록된 직업성 인칭접미사를 살펴보면 한국어 한자어는 중국어에 비해 직업성 인칭접미사의 파생력이 훨씬 크게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사전에서 접미사에 대한 설정기준을 엄격히 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자어 직업성 인칭접미사들이 중국어에서는 접미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접미어소로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어라는 언어는 접사가 무척 발달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지식전문성 유형’, ‘기술전문성 유형’,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 등으로 유형을 분석할 수 있고, ‘전문성’ 자질이 분명하지 않지만 대신 ‘신분성’ 관련 자질을 지닌 것은 ‘신분성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19) 한 : 지식전문성 유형: -가₁ (家), -사(士), -인₂ (人), -자₁ (者).

기술전문성 유형: -공(工), -사(士)b, -사(師), -수(手).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 -부(夫), -부(婦), -양(孃).

신분성 유형: -관(官), -상(商), -원₁ (員).

중 : 지식전문성 유형: -家, -者, 師a.

기술전문성 유형: -手, 工, 士, 師b.

지식기술 비전문성 유형: 夫, 婦, 娘

신분성 유형: 官, 商, -員, 人.

셋째,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각각의 내부 체계에서 사회적 계층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계층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 한 :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 -가₁ (家), -사(士)a, -자₁ (者), -관(官).

중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 -사(士)b, -사(師), -수(手), -인₂ (人).

하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 -공(工), -부(夫), -부(婦), -양(孃).

중립성을 띤 직업성 인칭접미사: -상(商), -원(員).

중 : 상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家, 師a, 官.

중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士, 師b, -手, -者.

하위계층을 나타내는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工, 夫, 婦, 娘.

중립성을 띤 직업성 인칭접미사/어소: 商, -員, 人.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일부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교차 대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사(士)a’는 중국어의 ‘師a’와 대응관계를 이루고, 한국어의 ‘-사(師)’는 중국어의 ‘士’와 교차 대응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중국어와 한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1 대 다(多)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어의 ‘-家’는 한국어의 ‘-가₁ (家)’와 대응되는 동시에 한국어의 ‘-자₁ (者)’와도 대응되며 한국어의 ‘-가₁ (家)’, ‘-자₁ (者)’, ‘-인₂ (人)’ 등은 동일 어근 뒤에서 상호 호환성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의 직업성 인칭접미사는 의미 유형, 계층 분화 등 면에서 유사한 점들도 많지만 의미 대응 면에서는 상이한 점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본고의 고찰을 통해 한국어 사전 및 중국어 사전의 직업성에 관련된 뜻풀이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고찰이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에도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양진(2009), “한자어의 형태 분석과 동음이의 처리”, 「형태론」 11권 2호, 형태론학회, 377-405.
- 김용환(1998), 「한자 어소의 의미 기능 연구」, 국학자료원.
- 김중택(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 김창섭(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김청룡(2012), “한자어 인칭접미사의 사회적 계층성 분석”, 「한국어 의미학 37, 한국어의미학회, 53-76.
- 나은미(2005), “과생 접미사의 의미 패턴 연구”,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81-110.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서정섭(2009),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 「국어문학 46, 국어국문학회, 107-130.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06),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주행(2007), 「한국어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철우(1983), “인칭접미사의 의미분석”, 「겨레어문학」 8, 겨레어문학회, 311-322.
- 이영자(2008), “한, 중 인칭접미사 ‘-자(者), -가(家), -인(人), -사(師)’의 의미 기능 고찰”, 「언어과학연구」 47, 언어과학회, 1-34.
- 진정정(2008), “한중 인칭접미사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15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4-29.
- 천정아(2010), “현대국어 인칭접미사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치근(1986), “국어 인칭접미사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6,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71-194.
- 郭石磊(2010), 「韓中人稱名詞尾碼對比」,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漢語水準考試部編, 劉英林主編(1996), 「漢語水準等級標準與語法等級大綱」, 高等教育出版社.
- 馬慶株(1995), “現代漢語詞綴的性質, 範圍和分類”, 「中國語言學報」第6期, 商務印書館, 101-137.
- 任學良(1981), 「漢語造詞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艾妮(2012), “基於第二語言教學的現代漢語指人類尾碼研究”, 華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張小平(2003), “當代漢語類詞綴辨析”,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5卷(總第

113期), 22-25.

- 張學(2011), “漢語人稱詞綴, 類詞綴的對外漢語教學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朱宏一(2004), “漢語詞綴的定義, 範圍, 特點和識別”, 「語文研究」總第93期, 32-3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08), 「現代漢語詞典」(第五版), 商務印書館.

中國北京海澱區中關村南大街27号中央民族大學朝文系

한국어의미학회 회원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조선어문학부

전화 번호: (86)0168932556

전자 우편: kimcn1979@hotmail.com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원고 수정일: 2013년 12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24일